

중국

2026년 청명절 연휴 소비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China Strategy Analyst 박주영 jyp1ark@kiwoom.com

SUMMARY

국내여행: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봉방학 제도와 시너지 효과로 인해 견조한 성장 기록. 중국 국내 여행객수는 1.35억명(YoY +7%), 여행매출은 614억위안(YoY +7%) 기록. 1인당 여행 소비금액은 455위안으로 2025년(457위안) 수준 유지

해외여행: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 국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성장세 둔화되면서 예상치 하회. 출입국자수는 678만명(YoY +9%) 기록. 한국과 태국에 대한 선호도 높았으며, 외국인 여행객 증가도 지속

해남도: 일평균 매출은 0.9억위안(YoY +15%)으로 춘절에 이어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인당 소비금액은 5,861위안으로 YoY 4% 감소

중국 국내여행 수요 견조, 해외여행은 상대적으로 성장 둔화

중국 국내여행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봉방학 제도를 시행했으며, 청명절 연휴와 겹치며 최대 6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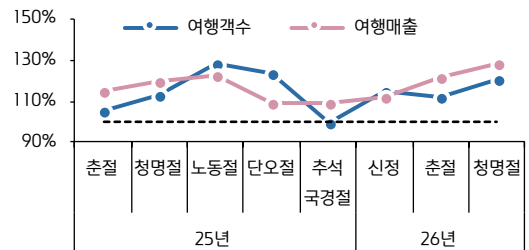
중국 문화여행국 기준 2026년 청명절 연휴기간(4/4~6) 중국 국내 여행객수는 1.35억명(YoY +7%), 여행매출은 614억위안(YoY +7%)을 기록했다. 1인당 여행 소비금액은 455위안으로 2025년(457위안)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6년 춘절 대비 개선됐다.

중국 해외여행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 국면이 마무리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NIA) 기준 2026년 청명절 연휴기간(4/4~6) 출입국자수는 678만명(YoY +9%)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중국 본토는 265만명(YoY -4%), 홍콩/마카오/대만은 329만명(YoY +19%), 외국인은 84만명(YoY +21%)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 출입국자수는 226만명(YoY +11.5%)으로 NIA의 예상치(230만)를 하회했다.

중국 OTA 플랫폼 Tuniu 기준 연휴 기간 해외 인기 여행 도시 Top10은 발리, 몰디브, 방콕, 싱가포르, 파타야, 코타키나발루, 서울, 푸켓, 부산, 제주도로 한국과 태국이 중국 여행객으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수 증가가 지속됐으며, 트립닷컴 기준 미국, 유럽 등 장거리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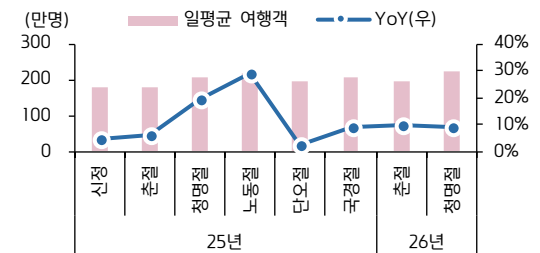
해남도 면세시장은 춘절에 이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소비심리는 부진했다. 2026년 청명절 연휴기간(4/4~6) 해남도 면세점 매출은 2.8억위안(YoY +15%), 면세점 이용객수는 4.8만명(YoY +3%), 구매 건수는 22.4만건(YoY +10%)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출은 0.9억위안(YoY +15%)으로 춘절에 이어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인당 소비금액은 5,861위안으로 YoY 4% 감소했다.

중국 주요 연휴 여행객수 및 여행매출 19년 대비 회복률



자료: 문화여행국,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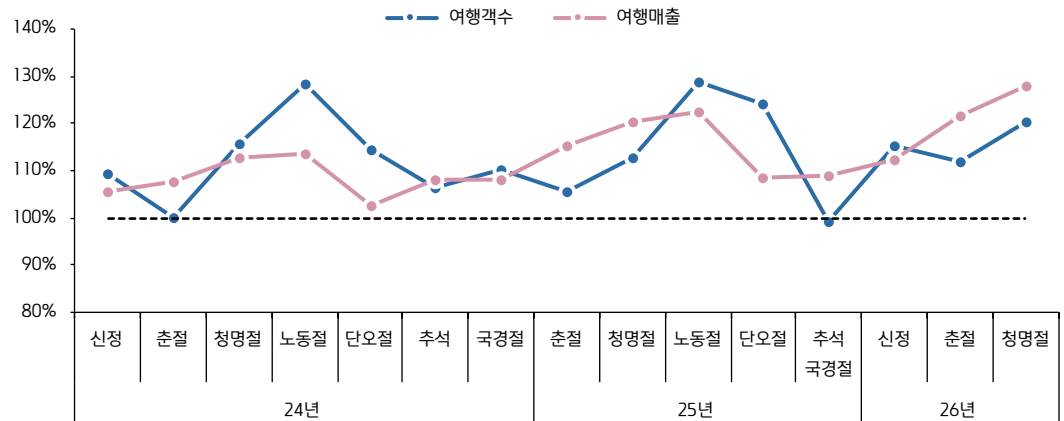
중국 주요 연휴 일평균 출입국자수 및 증가율



자료: 국가이민관리국,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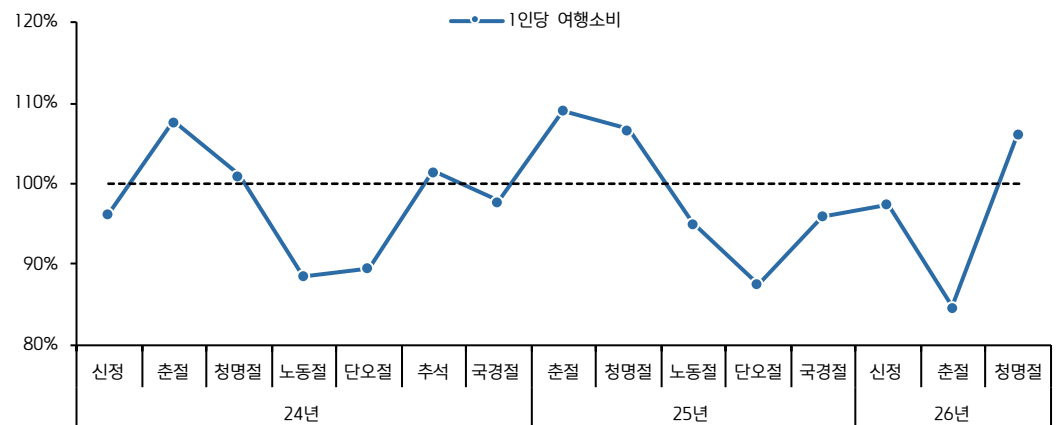
2026년 4월 8일 중국은 지금,
2026년 청명절 연휴 소비는?

중국 주요 연휴 여행객수 및 여행매출 19년 대비 회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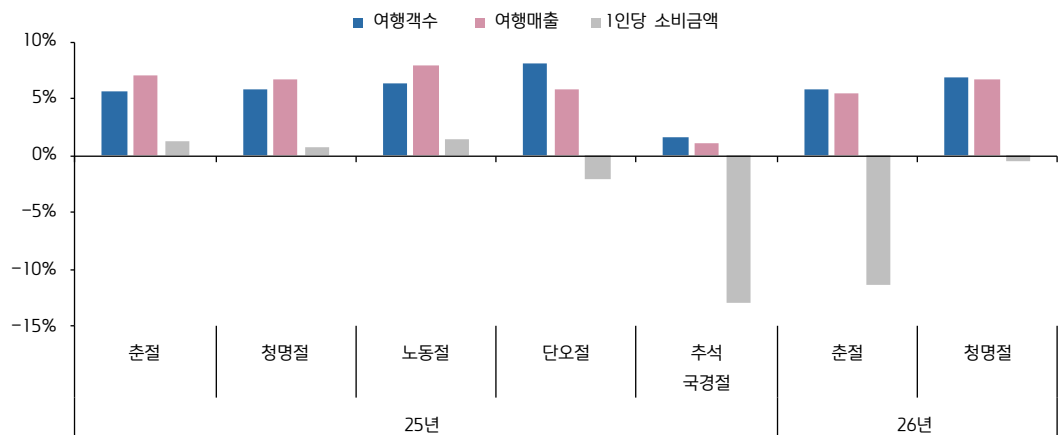
자료: 문화여행국,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주요 연휴 1인당 여행 소비금액 19년 대비 회복률



자료: 문화여행국,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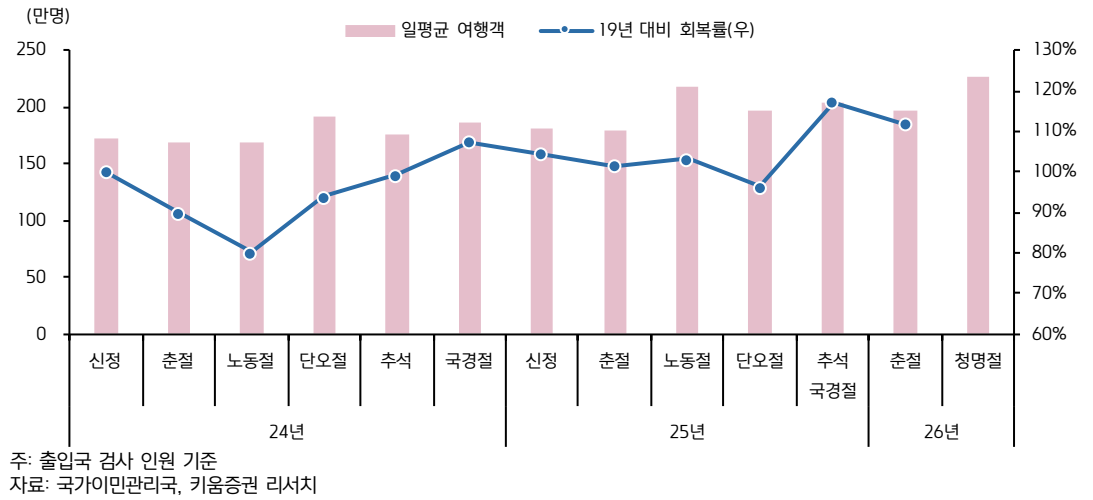
중국 주요 연휴 관련 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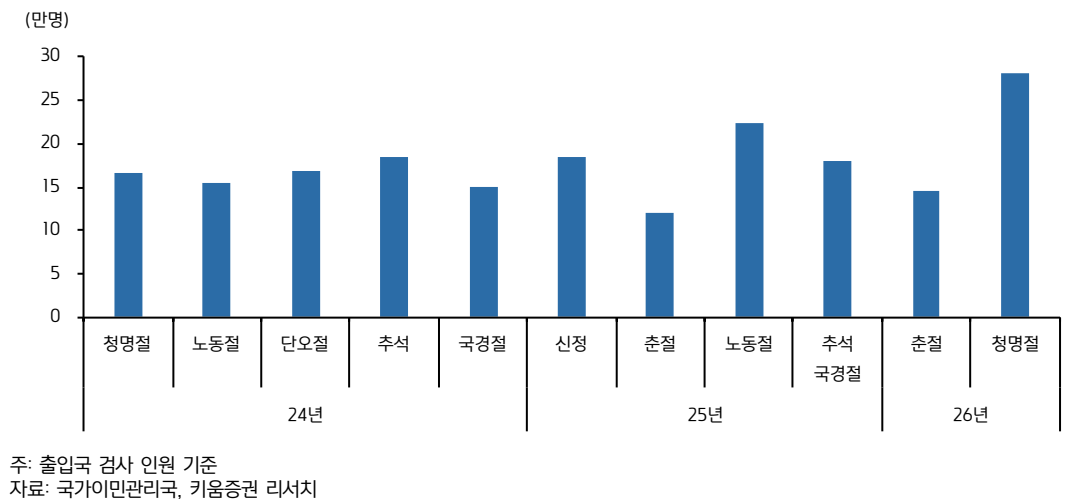
자료: 문화여행국, 키움증권 리서치

2026년 4월 8일 중국은 지금,
2026년 청명절 연휴 소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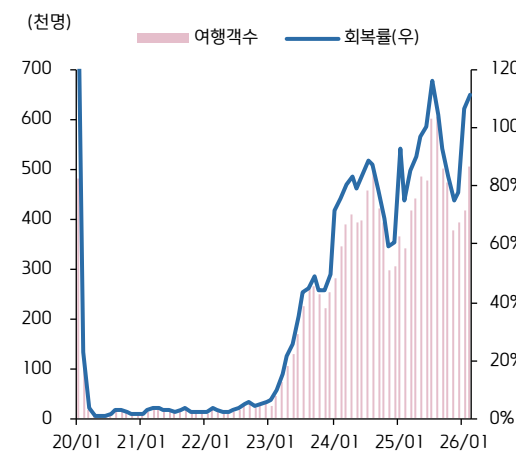
중국 주요 연휴 일평균 출입국자수 및 19년 대비 회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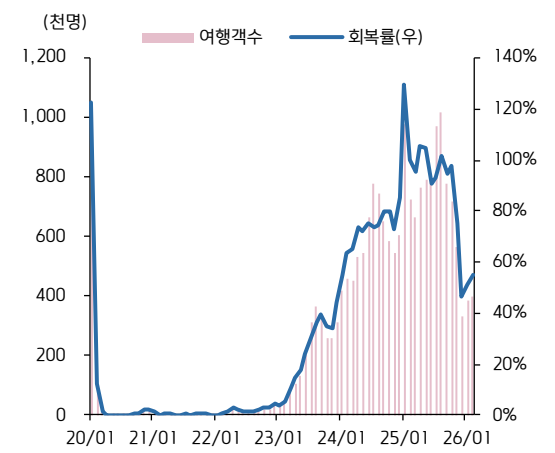
중국 주요 연휴 외국인 일평균 출입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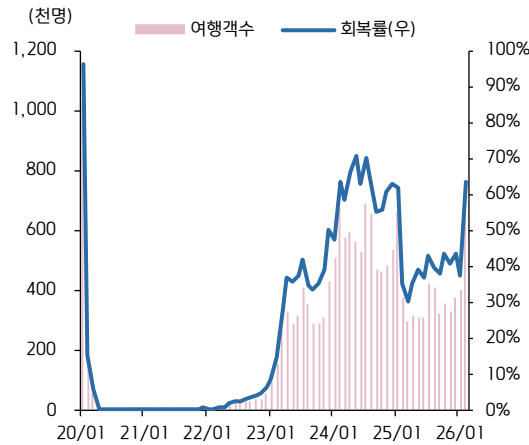
한국 중국인 여행객 및 19년 대비 회복률



일본 중국인 여행객 및 19년 대비 회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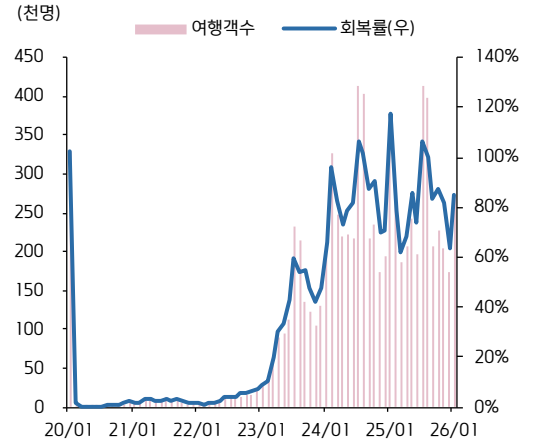


태국 중국인 여행객 및 19년 대비 회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싱가포르 중국인 여행객 및 19년 대비 회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해남도 면세 시장 주요 연휴 일평균 매출 비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